

모로단청 머리초의 기원과 변화과정 연구

A Study on the Origin and Change of Moro-Dancheong Meoricho

이 은 희*

Lee, Eun-Hee

(공학박사)

Abstract

Meoricho of Dancheong is a pattern that placed at the end of each elements. We call Dancheong which has Meoricho Moro-dancheong. Meoricho is the pattern comes from the metal ornaments of ancient architecture. The most primitive forms of Meoricho is Saw-toothed Design. Since the influence of Buddhism in the Northern Wei dynasties Saw-toothed Design have changed Tied lotus Design. Tied lotus Design of the Unified Silla it becomes Gak-yeop Design and Yeo-ui-doo Design Meoricho in Goryeo Dynasty. Since Goryeo Dynasty there's been great and small variations in the internal composition of Meoricho, but the outline has maintained as it was. Therefore the completed form of the outline of Meoricho could be regarded as the one that was formed in Goryeo Dynasty.

주제어 : 단청, 모로단청, 머리초, 거치문, 속련문, 속련주

Keywords: Dancheong, Moro-Dancheong, Meoricho, Saw-toothed Design, Tied lotus Design, Tied lotus columns

1. 서론

이른 시기의 단청은 기하학이나 식물을 모티브로 한 연속문양을 주로 사용하여 조선시대 단청에 비해 구도의 형식을 자유롭게 하였다. 이후 부재의 양 끝을 강조하는 경향이 이어지고 이 부분을 머리초라 하며, 머리초의 여부는 굽기단청과 모로단청으로 나누는 단청 분류의 기준이 되었다.

모로단청은 주요부재의 양단부에 머리초문양 단청을 하는 것이며 부재 중간부에는 가칠·굽기단청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¹⁾ 모로(毛老)는 모서리, 끝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부재 끝에 들어가는 화려한 문양부분을 머리초라고 한다.²⁾ 조선시대 머리초는 건물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녹화, 연화, 석류동, 방울 등을 순서에 따라 배열한 다음 휘 문양을 붙인 것이 기본 형식이다. 머리초는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부른다. 평방, 창방, 도리, 대들

보 등에서는 머리초라 하였고, 기둥머리에 놓는 것은 주의초, 서까래 끝에 놓는 것은 연등초, 부연 끝의 것은 부연초라 한다.³⁾

머리초의 시원적인 형태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거치문 머리초에서 볼 수 있다. 고대건축 벽대(壁帶)에 사용되었던 금강(金釘)은 거치문(鋸齒紋)으로 남아 단청 머리초의 기원⁴⁾이 된다.

머리초와 관련된 연구로 연화머리초 성립⁵⁾에 관한 것과 기둥 머리초인 주의초(柱衣草) 연구⁶⁾가 있다. 그러나

3) 임영주, 『단청』, 대원사, 1991, 108쪽

4) 리원희, 『중국 고전건축의 원리』, 이상해·한동수·이주행·조인숙 역, 시공사, 2000, 322쪽; 중국건축사편찬위원회, 『중국건축개설』, 양금석 역, 태림문화사, 2003, 185쪽; 광동해, 『한국단청의 원류』, 학연문화사, 2011, 41~47쪽

5) 이 논문은 머리초의 한 종류인 연화머리초가 연꽃·석류·향아리 등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연꽃과 석류의 결합은 원래 석류화의 도안에서 시작되었고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 상징성의 진래가 약화되면서 유사한 연꽃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았다. 그 근거로 『영조법식』의 해석류화 문양이 명대(明代) 초기 채화(彩畵) 문양과 같이 석류화에서 연화로 변해가는 것을 들었다. (광동해, 「연화머리초의 성립에 대한 고찰」, 동약미술사학회, 6호, 2005)

6) 이 논문은 주의초가 기둥에 비단으로 옷을 입혀 더러움을 방지하고 장엄하던 것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김주연, 「전통건축 주의초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Corresponding Author : amilmil@hanmail.net

본 논문은 저자 본인의 「고려시대 단청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중 일부를 발전시킨 것임을 밝힙니다.

1) 장기인·한석성, 『한국건축대계Ⅲ: 단청』, 보성각, 1998, 34쪽

2) 김왕직, 『알기 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도서출판 동녘, 2007, 288쪽

8 논문

고구려 고분벽화의 시원적인 거치문 머리초 이후 어떻게 조선시대의 머리초가 되었는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간략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대건축 벽대에 사용되었던 금강의 형태를 본뜬 거치문이 조선시대 모로단청의 머리초가 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단청 연구에서 다루지지 않았던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로 이어지는 동안 머리초의 변화과정에 대한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연구 범위에 해당하는 시기는 남아있는 단청 유구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부의 문양보다 외부의 윤곽선을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통일신라시대 머리초에 대한 단서로 석굴암 석주와 불국사 좌경루 하부 석축 기둥에 남아있는 속련문을 들 수 있다. 속련(東蓮)은 연꽃을 묶었다는 뜻으로, 연꽃잎의 모양을 양련(仰蓮)과 복련(覆蓮)의 형태로 배치한 후 가운데를 묶어 장식한 것을 속련문(東蓮紋)이라 한다. 속련문은 형태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속련의 위치는 고대건축의 구조부재가 있었던 곳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속련 장식의 기원을 벽대에 장식된 금강에서 찾을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 이후 봉정사 극락전이나 수덕사 대웅전 이전의 단청 실물을 찾기 어려워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 초에 해당하는 석조물과 금속공예품의 문양을 비교하고, 중국 석굴건축에 남아있는 조각과 채화(彩畵)⁷⁾ 문양을 참고하였다.

머리초를 고찰하는 것은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이후 단청 연구의 공백을 메우며 한국 단청을 시대 순으로 이해하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주 작은 단서라도 이를 토대로 연구 영역을 확장한다면 고대건축 단청 연구에 보다 완성된 모습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머리초의 기원

2-1. 고구려 고분벽화의 거치문 머리초

안악1호분은 4세기말에서 5세기 초 무렵 축조⁸⁾된 벽화고분이다. 안악1호분의 거치문은 횡부재의 양 끝단에 위치하고 세로선으로 구획을 나누어 가운데 부분에는 S자형의 운문(雲紋)을 대칭으로 넣었다.

7) 한국의 단청(丹青)을 중국에서 채화(彩畵)라 하고 일본에서는 채색(彩色)이라 한다. 본 연구는 각 국가별 명칭에 따라 표기하였다.

8) 고분벽화의 축조시기는 ICOMOS 한국위원회, 『세계문화유산 고구려고분벽화』, 문화재청, 2004에 따랐다.



그림 1. 안악1호분의 거치문 머리초

(출처: 서울대출판부,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2000, 101쪽)



그림 2. 조선시대 단청 머리초 (경복궁 근정전)

안악1호분의 거치문은 조선시대 단청 머리초가 있는 위치와 일치한다. 또한 거치문이 끝나는 부분과 S자형의 운문이 있는 부분 사이에 세로선은 먹당기와 실로 머리초와 계풍(界風)⁹⁾을 나누는 기법의 시원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수산리고분(5세기 후반)의 거치문은 횡부재의 양 끝단 외에 기둥 상부와 주두 및 소로에도 장식되었다. 횡부재 양 끝단에만 거치문이 있는 안악1호분과 달리 기둥 상부도 있는 수산리고분의 거치문은 기둥 머리초가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로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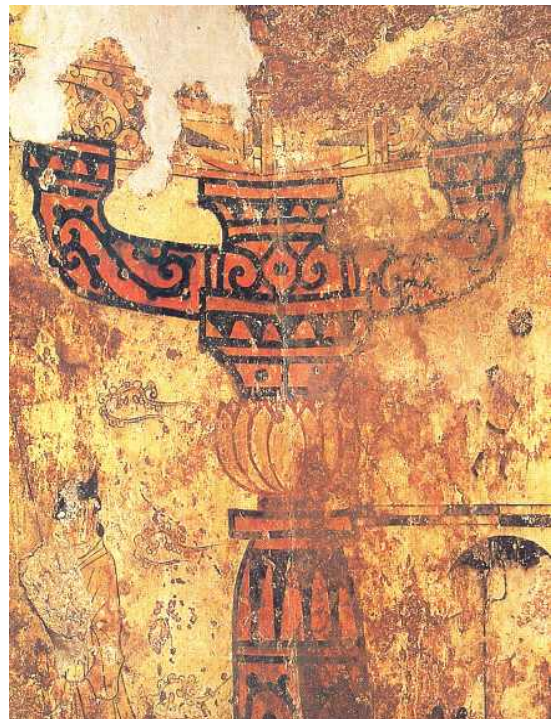


그림 3. 수산리고분 기둥상부와 침차의 거치문

(출처: 서울대출판부,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2000, 197쪽)

안악1호분과 수산리고분에서 건축도 모서리에 위치한 기둥 상부의 거치문은 섬서성(陝西省) 봉상현(鳳翔縣)에

9) 머리초와 머리초 사이 굽기로 마감되는 부분을 계풍이라 한다.

서 출토된 금강<그림 4>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

수산리고분 주두와 소로의 거치문은 안악2호분에서도 찾을 수 있다. 금강이 부재와 부재의 결합부분에 위치하여 견고함을 더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주두와 소로에 장식된 거치문은 견고함을 더하는 기능이 돋보이는 문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악2호분의 거치문 주두(혹은 소로)는 모줄임천장의 모서리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치문은 북위시대 불교의 확산과 더불어 서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장식문양이 유입되면서 점차 연화문으로 변화하였다. 톱날처럼 날카롭고 뾰족하던 문양이 연꽃잎으로 변화한 것이다.

단순한 꽃잎 형태의 속련문은 수당(隋唐)시기를 지나 연주문(聯珠紋) 및 팔메트 문양과 결합하여 정교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그림 4. 중국 봉상현 출토 금강

6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 벽화고분은 안학1호분이나 수산리고분과 같은 건축도를 찾기 어려워 당시 단청이 목부재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모줄임천장이나 벽화에 사용된 다양한 팔메트 문양은 후에 신라와 일본에 전해진다.

2-2. 거치문 머리초의 기원 금강(金釘) 장식

속련문은 문양의 형태에 붙인 이름이지만 속련문이 장식된 곳의 위치는 벽대의 금강이 있던 곳과 일치한다.

고대(高臺)건축은 진한(秦漢) 이래 대형 건축을 축조하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였다. 고대건축에서 벽대와 벽주가 연결된 부분은 금속 부재로 견고함을 더하였는데

이를 “강(釘)”이라 하였다.¹⁰⁾ 고대(古代)에 이른바 금이라는 것은 금속이나 구리를 가리키고, 황금은 바로 금을 가리킨다. 금강은 동강(銅釘)의 의미로서, 강(釘)은 기물에 입힌 꺾질이며 바퀴 축에 입힌 구리 부재도 강(釘)이라 하였다. 건축에 사용된 금강은 연결 부분 구조의 받침목 역할을 하였으며 장식성의 형제까지 발전하였다.¹¹⁾

『한서(漢書)』에 장안 미양궁(未央宮) 소양사(昭陽舍) 벽대 위에는 금강(金釘)과 옥벽(玉璧), 명주(明珠), 취우(翠羽)로 장식했다고 하였다. 『경복전부(景福殿賦)』에 “落帶金釘”이라는 금강의 기록을 찾을 수 있다. 한(漢) 궁실 중에는 금강 위에 상감한 옥을 배열하여 꾸몄는데 형상이 마치 동전을 나열한 것과 같았다고 한다. 동진 묘실에 사용된 화문전 중 동전과 같은 문양은 이와 같은 장식 기법이 문양화된 것이다. 문헌기록을 통해 본 한대(漢代) 궁실에서 금강 장식은 화려함을 돋보이게 하는 주요한 장식이었을 것이다. 북위(北魏) 건축에도 여전히 벽대가 남아있지만 문헌에 금강은 언급되지 않았다. 아마도 일종의 채화 문양이 된 듯하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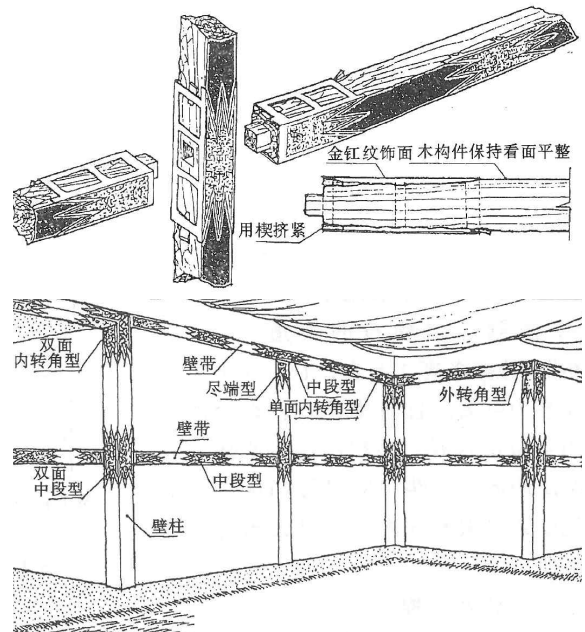


그림 5. 금강 결구 예시도

(출처: 劉叙杰 主編, 『中國古代建築史-第1卷』,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3, 307쪽)

중국 고대(高臺)건축에서 금강은 벽대(壁帶)와 벽주

10) 趙琳, 『魏晉南北朝室內環境藝術研究』, 東南大學出版社, 2005, 17쪽

11) 리원허, 앞의 책, 320쪽

12) 傅熹年 主便, 『中國古代建築史-第2卷』,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16, 271쪽

10 논문

(壁柱)에 사용되었으며,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역할과 동시에 벽면 위의 중요한 장식이 되었다. 목구조의 발달에 따라 벽대가 소실되자 금강도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데 금강 형태는 채화의 문양으로 남게 되었다.

3. 속련문 머리초의 전개

3-1. 중국 석굴건축과 승탑의 속련문

중국에서 속련문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고대 석굴 사원의 도리나 보 등의 횡부재와 기둥 인방재 등의 수직 부재의 장식부터이다. 초기 속련문의 형태와 위치는 거치문(鋸齒文)과 유사하지만 점차 연화형(蓮花形)으로 변하게 된다.

속련문이 연화형으로 변하게 된 시기는 불교의 유입과 관련이 있다. 연화 도안이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위진(魏晉)시기 이후이며 기둥을 속련으로 장식한 사례가 남아있는 곳은 운강석굴, 향당산 석굴, 승악사탑 및 불광사 조사탑 등이 있다.¹³⁾

초기의 속련주는 돈황 막고굴, 운강석굴, 용문석굴 등 북위(北魏) 이전의 석굴 중에서 일반적으로 불감(佛龕)의 양측에 배치하였다. 그러다가 북제(北齊) 및 수(隨) 이후 점차 건축과 결합하여, 건축 결구 기둥의 장식이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향당산 석굴에 사용된 속련주를 들 수 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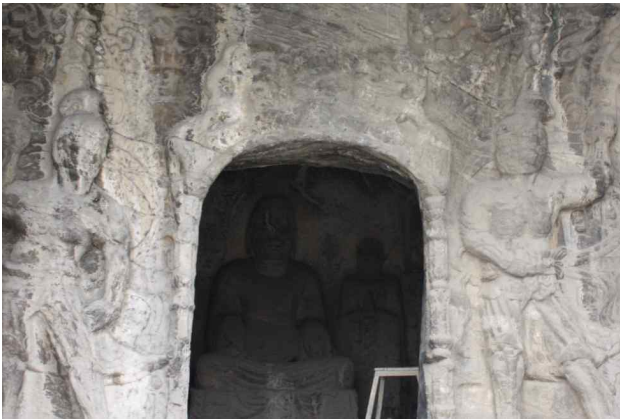


그림 6. 낙양 용문석굴 약방동 속련주

용문석굴(龍門石窟) 약방동의 속련 장식은 비교적 세장한 기둥에 4단으로 장식되었다. 연꽃잎은 테두리를 두어 꽃잎의 형태를 강조하고 가운데는 둥근 향아리형의 띠를 둘러쌌다.

13) 蕭默, 『敦煌建築研究』, 文物出版社, 1989, 215~216쪽

14) 趙琳, 『魏晉南北朝室內環境藝術研究』, 東南大學出版社, 2005, 54쪽

향당산(響堂山)석굴 제7굴의 속련주는 8각 모서리에 선각을 두었고 속련 형태는 꽃잎 끝부분에 오금을 주고, 상하 양련(仰蓮)과 복련(覆蓮)의 가운데 부분을 두 단의 띠로 묶었다.

오대산 불광사(佛光寺) 조사탑은 동대전의 동남쪽에 있는 육각 평면의 전탑으로 건립 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북조(北朝)시대로 추정된다.¹⁵⁾



그림 7. 남향당산석굴 제7굴의 속련주

육각 평면의 오대산 불광사 조사탑은 탑신 모서리 기둥마다 또렷한 형상의 양련(仰蓮)이 상·중·하 3단으로 장식되어있다. 각 양련 하부는 한 단의 띠로 둘러 받침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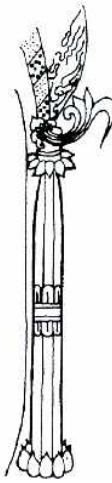


그림 8. 오대산 불광사 조사탑의 속련주

돈황 막고굴(莫高窟)에는 속련문을 사용한 채화의 유구가 많이 남아있다.

15) 오대산 불광사 조사탑의 추정 연대는 梁思成, 『中國建築史』, 百花文藝出版社, 2007, 83쪽과 清華大學建築設計研究院, 北京清華城市規劃設計研究院, 文化遺產保護研究所 著者, 『佛光寺東大殿建築勘察報告』, 文物出版社, 2011, 13쪽에서 북제(北齊)로 추정하였으나, 傅熹年 主便, 『中國古代建築史-第2卷』,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16, 548~549쪽에는 수~초당으로 추정하였다. 북위시대 속련 장식이 크게 유행한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 불광사 조사탑의 추정 연대는 북조시대로 보았다.

표 1. 둔황 막고굴 속련주

(출처: 蕭默, 『敦煌建築研究』, 文物出版社, 1989, 216~217쪽)

Details	Details	Details
		
제56굴	제427굴	제309굴

둔황 막고굴 속련주는 기둥을 상·중·하로 나누어 세 곳을 속련(東蓮)으로 장식한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고 간혹 기둥의 중심부를 밴드형¹⁶⁾으로 장식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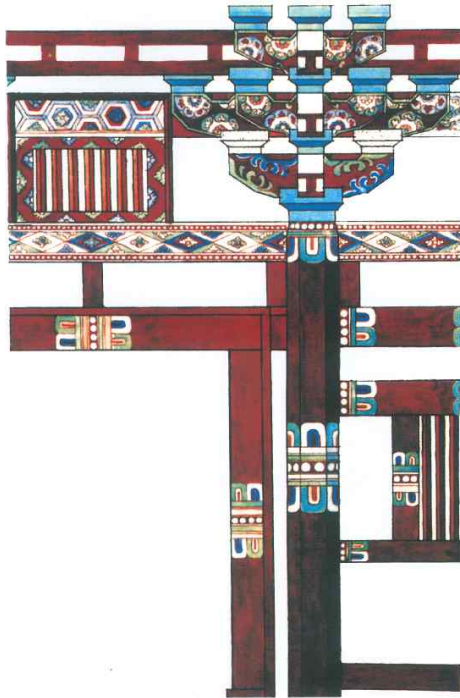


그림 9. 제431굴 송(宋)

(출처: 孫大章, 『彩畫藝術』,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13 35쪽)

둔황 막고굴 채화에서 제431굴의 속련문은 기둥과 인방재 도리 등의 여러 부재에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속련

16) 중국 채화에서 기둥에 천으로 감싸는 형태의 문양을 속대(東帶)라 한다.

문양은 연꽃을 묶는 부분은 띠 형태로 두른 다음 연주문(聯珠紋)으로 장식하고 인접한 꽃잎과 색상의 변화를 주고 복엽(複葉) 내부는 보색대비로 꾸며 화려함을 더하기도 하였다.

남북조(南北朝) 후기에서 초당(初唐)에 이르는 짧은 시간동안 끊임없이 소그드와 페르시아 심지어 비잔틴 양식의 각종 공예품이 출현하였다. 예를 들면 채색무늬 비단과 금은용기(金銀容器) 등으로 그 중에서 각종 장식 문양으로 연주문(聯珠紋), 단과(團窠), 권초(卷草) 등은 사회 각 계층의 사랑을 받았으며 폭넓게 건축 장식과 묘실 석각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북조시기 기둥의 장식 조각으로 사용되던 속련문은 수당(隨唐) 이후 점차 기둥의 채화로 변화하였는데, 송초(宋初)의 채화 유구인 제431굴에 연주문과 결합한 속련문이 잘 남아있다.¹⁷⁾

속련문 장식은 둔황 막고굴 제427굴, 제431굴, 제444굴의 채화에서 북송(北宋)대 이후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영조법식』에는 이미 소실된 장식법이다.¹⁸⁾

속련 문양은 불감의 장막 기둥에 사용되던 초기에는 1단 내지 4단으로 자유롭게 장식하다가 건축의 기둥에 사용되면서 점차 상·중·하 3단의 장식으로 사용한 사례가 많이 보인다.

3-2. 통일신라시대~고려 초 속련문 사례

통일신라시대 속련주는 사천왕사 녹유신장벽전과 석굴암 팔각주 및 불국사 좌경루의 기둥에서 찾을 수 있었다.

녹유신장벽전은 사천왕사 동·서 목탑의 기단부 면석으로 한 면에 6구씩 한 탑에 25구씩 사용되었던 벽전이다.¹⁹⁾

사천왕사는 신라가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루고 난 뒤 문무왕 19년(679)에 세워진 호국사찰로²⁰⁾ 출토 유물 중에는 당의 요소나 서역의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많아 녹유신장벽전을 제작한 인물인 양지(良志)가 서역인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²¹⁾ 양지는 신라를 대표할 수 있는 조각가이자 예술가였고 그가 남긴 조각상에는 이국적인 요소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17) 傅熹年 主便, 『中國古代建築史-第2卷』,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16, 621~622쪽

18) 李路珂, 앞의 책, 342쪽

19)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사천왕사 녹유신장벽전』,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 166쪽

20) 『삼국사기』 권 제7 신라본기 제7 문무왕 19년

21) 강우방, 『法空과 莊嚴』, 열화당, 2000, 160~16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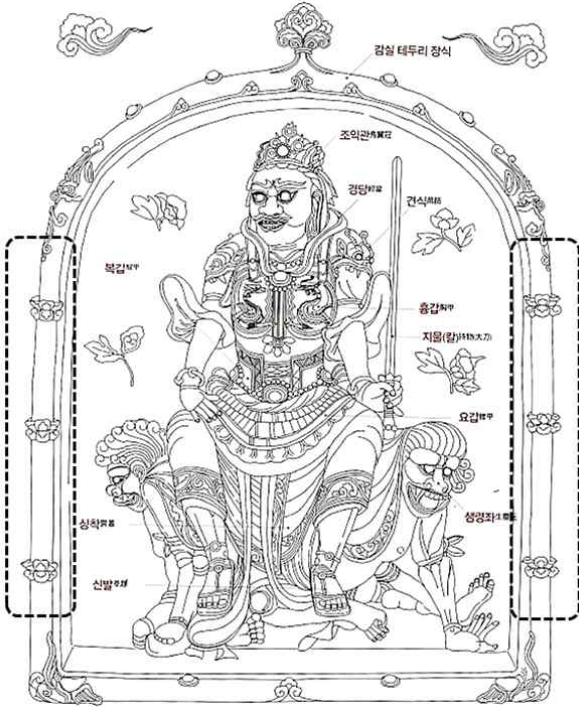


그림 10. 녹유신장벽전의 속련주
(출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시원왕사 녹유신장벽전』,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5년)

녹유신장벽전의 신장상을 둘러싸고 있는 감실 테두리 장식은 좌우 기둥에 속련이 상·중·하 3단으로 장식되었고, 상부는 아치형으로 석굴사원 입구 형태를 그대로 본뜬 형태로 하였다.



그림 11. 석굴암 속련주
(출처: 조선고적도보 제5권, 국립문화재연구소)

속련의 형태는 양화와 복련으로 가운데를 묶는 띠는 없지만 꽃잎의 형태는 복엽으로 하였다.

석굴암에서 전실과 통로를 지나면 본존불을 모신 공간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좌우로 팔각형의 석주가 세워져있다. 이 팔각주는 복발형의 초석과 두공형의 기둥상부로

되어있다. 석굴암의 속련은 양화형으로 조각되어 있고 그 위치는 기둥 중심부보다 약간 상단부에 자리한다.

석굴암 속련주의 특징은 양화와 복련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속련 장식과 달리 양화로만 이루어진 것이다. 양화형 속련은 복발형 주초석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중국 용문석굴이나 향당산석굴과 같은 굴착식 석굴과 다른 구조로 조성된 석굴암의 평면은 보다 입체적으로 전개된다. 본존불이 있는 처소로 진입하는 입구의 기둥을 팔각 속련주로 하되 절제된 장식으로 보다 극적인 공간으로 연출한 의도가 아닌가 한다.

불국사 좌경루 석주²²⁾는 팔각으로 잘 다듬은 화강석에 하부는 복발형의 초석과 상부는 두공형으로 조각하고 기둥의 중간에는 속련으로 장식하였다.

불국사 석축에서 청운·백운교의 좌우로 범영루와 좌경루가 있는데 좌경루의 석주는 화려하게 구름모양으로 중첩한 범영루의 석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략한 형태이다. 이러한 비대칭 구조는 불국사의 특징 중 하나이다.



그림 12. 불국사 좌경루 속련주

통일신라시대 속련문은 건축장식 외에 금속공예 및 석등에도 사용되었다. 통일신라시대의 범종 중 특히 상원사동종과 성덕대왕신종의 용통(雨筒)²³⁾ 속련문은 석굴암이나 불국사 축대의 속련문보다 정교하고 섬세한 조각을 보여준다. 연주문 및 보상화문 등과 결합한 속련문은 당송시기 채화에 장식된 문양과 유사하다.

통일신라시대 석등 중 간주석을 속련문으로 장식한 것이 있다. 그 중에서 선림원지 석등 간주석의 속련 장식은 양련과 복련 사이 묶은 부분을 띠로 두르고 띠 사이와 사이에는 둥근 화문(花紋)으로 장식하였다. 이와 같이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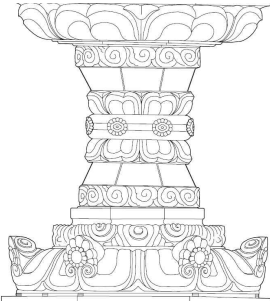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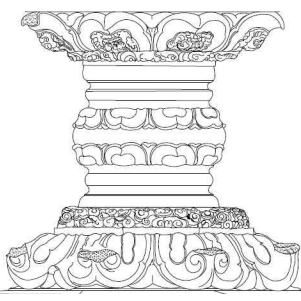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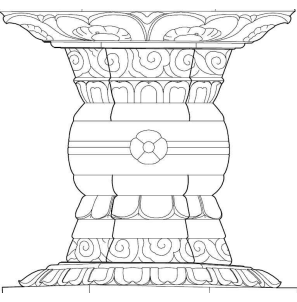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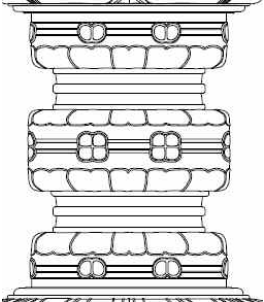
22) 좌경루의 석주는 1970년대 복원공사를 할 당시 팔각연화석주의 잔편을 수습하여 복원한 것이다. 그 부재는 좌경루 서쪽에 일부 재사용되었다. (문화재관리국, 『불국사복원공사보고서』, 1976, 137쪽)

23) 용통: 종의 음향을 조절하는 음관

련문으로 장식한 간주석이 있는 통일신라시대 석등으로
임실 용암리 석등, 청량사 석등, 실상사 석등 등이 있다.

표 2. 통일신라시대 석등 속련문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석등조사보고서』, 2001, 48~87쪽)

Details	Details
	
선립원지	임실 용암리
	
청량사	실상사

석등 간주석의 속련 장식 경향은 고려시대 초기까지
이어진다. 이후 속련의 문양이 점차 간략화 되면서 둥근
형태로 단순하게 처리되고, 북을 누어놓은 모양이라 하
여 고복석(鼓腹石)이라 부르게 되었다.

통일신라시대 속련주는 점차 약화되어 건축에 적용된
사례는 찾기 어렵고 단순화된 형태의 속련 장식은 석등
의 고복석으로 남게 되었다.

고려시대 전기 부도탑의 조각에도 석등의 간주석과 같
은 기둥 장식을 볼 수 있다.

10~11세기 흥법사진공대사탑과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
사탑의 탑신부에는 목조건축의 세부가 조각으로 남아있
는데, 기둥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능화문이나 연화문으로
장식한 것을 볼 수 있다. 탑신부 기둥 장식은 통일신라
시대 속련주의 영향을 받아 상·중·하 3단으로 하였지만
세부 수법은 연화를 묶은 형태가 아니며 내부의 문양은
화려하고 섬세한 조각을 하였다.

사례가 많지 않지만 이시기 단청의 경향도 석조물의
조각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 흥법사진공대사탑



그림 14.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탑

3-3. 각엽문과 여의두문으로 변화하는 머리초

수당(隨唐)에서 북송(北宋)에 걸쳐 석굴건축과 불감 등
에 두루 장식되던 속련문은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각엽문이나 여의두문 문양으로 대체되었다.

북송 무렵 각엽문과 여의두문을 사용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북송대 채화 유구 중에서 비교적 보존이 잘된 것으로
정지사(靜志寺) 지궁(地宮)의 채화²⁴⁾와 백사송묘(白沙宋
墓)를 들 수 있다.

정지사 지궁 채화는 기둥의 가운데 속련은 없고 기둥
상부(즉 주의초가 있는 부분)와 횡부재가 결구되는 곳(머
리초가 있는 부분)에 사용되었다. 당송시기 속련문과 같
은 연주문과 복엽 등으로 꾸민 장식은 점차 간략화되고
꽃잎의 끝부분이 뾰족한 각엽형(角葉形)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4) 靜志寺塔의 창건은 北魏 453년이었으며, 이후 수나라 606년에 재건되었다. 唐代에는 858년과 889년에 불사리의 공양과 탑의 재건이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지궁이 닫힌 것은 北宋 977년이었다. 현존하는 지궁내 출토 유물과 벽화는 대부분이 송대 유물이다. 周旻美, 「宋代 靜志寺塔 地宮의 佛舍利 再埋納과 莊嚴方式 研究」, 『미술사학』, 23권, 2009, 75쪽



그림 15. 정지사 지궁
(출처: 李路珂, 앞의 책, 356쪽)

백사송묘²⁵⁾ 채화 역시 속련주가 소실되어 찾을 수 없고 기둥 상부의 부재와 부재가 결구되는 부분 및 모서리 부분에 각엽(角葉)으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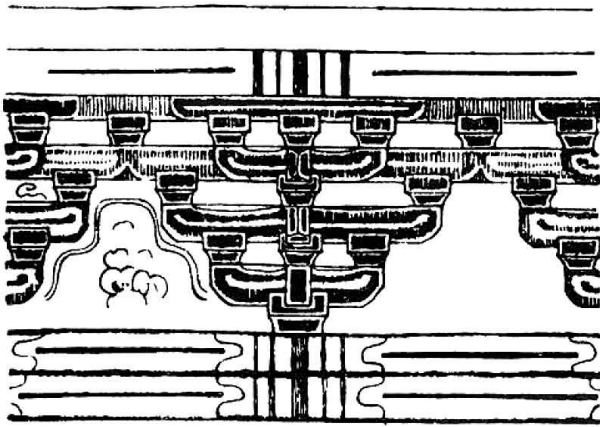


그림 16. 백사송묘 1호묘 각엽문 머리초
(출처: 宿白, 『白沙宋墓』, 文物出版社, 2002, 44쪽)

금강과 같은 구조 보강물은 점차 기능이 약화되어 송대에 이르면 백사송묘의 예와 같이 보나 도리의 양단에 황색의 각엽 형식으로 변화하였다. 송대 이전의 각엽은 보, 기둥, 반자틀 등 가구의 접합부에 금속 판박으로 부재의 강화와 장식을 겸한 것이었지만 뒤에 금속절약을 위해 그림으로 대체되며 이 안에 채색문양을 그리게 되고 결국에는 중국 채화에서 머리초에 해당하는 조두(藻頭)가 형성되었다.²⁶⁾

백사송묘 채화는 두 가지 형태의 각엽문이 사용되었다. 하나는 제1호묘 후실 서북벽 상층에 있는 <형의 각엽문이고 다른 하나는 <형에서 좀 더 장식적인 요소가 추가된 여의두문과 유사한 형태로 제2호묘 묘실 동남벽

25) 백사 1호묘는 1099년 건설된 것으로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 묘실은 전축으로 되었으며 전후의 2실로 형성되어 있다. 윤장섭, 『중국의 건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200쪽

26) 중국건축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85쪽

에 있다. 백사송묘에 있는 두 유형의 머리초는 11세기 무렵 각엽과 여의두형이 동시에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송 『영조법식』에 다양하게 변형된 각엽과 여의두형 머리초가 있으며, 도식화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

표 3. 『영조법식』 “여의두각엽” 도안의 종류
(출처: 李路珂, 앞의 책, 164쪽 재편집)

Details		
三卷如意頭	三卷如意頭	雲頭
簇三	豹脚	劍環
牙脚	疊量	單券如意頭

각엽과 여의두문 머리초는 고려시대 단청유구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17. 봉정사 극락전 대량 머리초
(출처: 문화재청, 『봉정사극락전수리보고서』, 2003, 46쪽)



그림 18. 수덕사 대웅전 대량머리초
(출처: 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2014 중요목조문화재 단청기록화 정밀조사 예산 수덕사 대웅전』, 문화재청, 2015, 25쪽)

봉정사 극락전이나 수덕사 대웅전 대량 머리초의 내부 문양은 조선시대 단청과 같은 낙은동이나 녹실 및 황실등이 발달되기 이전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외부 윤곽선은 온머리초와 반머리초로 구성된 병머리초 윤곽선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모로단청 외부 윤곽선의 형성은 고려시대에 이르면 어느 정도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이상에서 본 연구를 통해 머리초의 기원이 되는 고구려 고분벽화 단청의 거치문 이후 통일신라시대 속련문에서 고려시대 각엽문과 여의두문에 이르는 전개과정에 대하여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구려 고분벽화 거치문의 기원은 벽대의 금강에서 온 것으로, 남북조시기 불교문화의 확산으로 속련문으로 변화하였다. 목구조가 발달함에 따라 점차 벽대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지만 금강의 형태는 거치문으로 남았다. 부재의 양 끝단과 기둥의 머리 부분에 사용된 거치문을 통해 4~5세기경 초기적인 단청 머리초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횡부재의 것을 머리초라 하고 기둥머리의 것은 주의초라 불리게 된다.

부재와 부재가 결구되는 지점에 머리초가 있는 것은 시각적으로 부재의 견고성함을 더하는 기능²⁷⁾도 있다. 기둥 상부에 먹선으로 띠를 두르고 광두정 문양을 장식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둘째 통일신라시대 속련문은 사천왕사 녹유신장벽전 및 석굴암과 불국사 축대에서 찾을 수 있으며 당시 단청의 문양에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속련 장식은 통일신라시대 기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문양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일부 석굴건축이나 특수용도의 건물에 장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둥을 상·중·하 3단으로 장식하는 기법은 고려시대 초까지 보이다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속련문이 통일신라 단청연구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의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거치문에서 고려시대 각엽문과 여의두문 머리초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속련문은 북조시대 석굴사원 불감의 양측 기둥의 장식으로 주로 사용되었고 북제 및 수 이후 기둥을 장식하는 주요한 문양 중 하나가 되었다. 수당(隨唐) 시기 연주문 및 팔메트 문양과 결합하여 복합적인 속련문이 사용되었다가 북송 이후 점차 사라지고 각엽문과 여의두문 머리초 문양으로 남게 되었다.

셋째 고려시대 단청 머리초에서 보이는 각엽문이나 여의두문 윤곽선은 속련문에서 변화한 것이다. 그 과정을 중국 북송대 정지사 지공과 백사송묘의 채화에서 찾을 수 있으며 고려불화 건축도(建築圖)에도 초기적인 여의두문 머리초가 남아있다.

고려시대 단청 유구인 봉정사 극락전과 수덕사 대웅전의 대량머리초는 내부 문양에서 차이가 있지만 외부 윤

곽선의 형태는 각엽형과 여의두문을 결합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로단청 외부 윤곽선의 형성은 고려시대에 이르면 어느 정도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고구려 고분벽화 이후 봉정사 극락전 단청 이전의 머리초가 변화하는 과정을 고찰하여 그동안 단청 연구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지 않았던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 전반기 사례를 비중 있게 조명하였다. 그러나 머리초 내부 문양을 동시에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단청의 정밀 조사 및 문양 모사가 누적되면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부 문양을 보다 상세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三國史記』
2. 『營造法式』
3. 장기인·한석성, 『한국건축대계Ⅲ: 단청』, 보성각, 1998
4. 宿白, 『白沙宋墓』, 文物出版社, 2002
5. 김왕직, 『알기쉬운 한국건축용어사전』, 동녘, 2007
6. 임영주, 『단청』, 대원사, 1991
7. 리원희, 『중국 고전건축의 원리』, 이상해·한동수·이주행·조인숙 역, 시공사, 2000
8. 중국건축사편찬위원회, 『중국건축개설』, 양금석 역, 립문화사, 2003
9. 곽동해, 『한국단청의 원류』, 학연문화사, 2011
10. 곽동해, 「연화머리초 성립에 대한 고찰」, 동악미술사학회, 6호, 2005
11. 서울대출판부,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2000
12. ICOMOS 한국위원회, 『세계문화유산 고구려고분벽화』 문화재청, 2004.
13. 趙琳, 『魏晉南北朝室內環境藝術研究』, 東南大學出版社, 2005
14. 蕭默, 『敦煌建築研究』, 文物出版社, 1989
15. 傅熹年 主便, 『中國古代建築史-第2卷』,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16
16. 李路珂, 『營造法式』彩畫研究, 東南大學出版社, 2011
17. 梁思成, 『中國建築史』, 百花文藝出版社, 2007
18. 清華大學建築設計研究院, 北京清華城市規劃設計研究院, 文化遺產保護研究所 著者, 『佛光寺東大殿建築勘察報告』, 文物出版社, 2011
19.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사천왕사 녹유신장벽전』,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
20. 강우방, 『法空과 莊嚴』, 열화당, 2000
21. 문화재관리국, 『불국사복원공사보고서』, 1976
22. 김주연, 「전통건축 주의초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

27) 李路珂, 앞의 책, 343쪽

16 논문

- 원 박사학위논문. 2011
23. 周昞美, 「宋代 靜志寺塔 地宮의 佛舍利 再埋納과 莊嚴方式 研究」, 미술사학, 23권, 2009
 24. 국립문화재연구소, 『석등조사보고서』, 2001
 25. 劉叙杰 主編, 『中國古代建築史-第1卷』,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3
 26. 국립문화재연구소(www.nrich.go.kr)
 27. 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2014 중요목조문화재 단청 기록화 정밀조사 예산 수덕사 대웅전』, 문화재청, 2015,
 28. 윤장섭, 『중국의 건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29. 문화재청, 『봉정사극락전수리보고서』, 2003
 30. 孫大章, 『彩畫藝術』,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13

접수(2017. 10. 15)

게재확정(2017. 11. 10)